



EU,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규제 시사

이정환 선임연구원

■ EU 집행위원회는 3월 19일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그림자금융¹⁾(shadow banking)에 대한 감시와 규제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함.

- EU 금융서비스산업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미셸 바르니에 집행위원은 금융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리스크²⁾들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려면 사실상 금융활동을 하는 회사들의 규정 사각지대를 막아야 한다고 밝힘.
- 바르니에 집행위원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림자금융이 무엇이고 실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어느 수준에서 어떤 통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함.
- EU의 그림자금융 감시·규제 방안은 늦어도 2012년 말까지는 제시될 것이며, 2013년 초에는 법 제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EU는 EU 차원의 감시·규제 방안이 마련되면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회의에 제안하여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차원에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EU는 2010년 현재 글로벌 금융산업에서 그림자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5~30%이며, 금액으로는 46조 유로(60조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함.

- 해외 감독기관들은 미국의 경우 그림자금융이 가장 널리 보편화되어 미국 전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4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 그러나 지난 10년간 그림자금융이 가장 빨리 보급된 곳은 유럽인 것으로 파악됨.

1)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같이 신용을 창출하면서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 부문을 뜻함. 그림자금융에는 상장지수펀드(ETFs), 머니마켓펀드(MMF), 헤지펀드를 비롯해 신용이나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금융·증권사들이 포함됨.

2) EU는 그림자금융이 양산하는 리스크를 세 가지 형태로 파악하고 있음. ① 그림자금융에 의해 반복적으로 창출되는 신용버블, ② 금융감독 규정을 회피하거나 리스크를 은닉하는 금융회사, ③ 무질서(disorderly)한 파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의 전이.

■ EU는 그림자금융 감독 권한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하여 그림자금융권에 현재보다 높은 자본요구 기준을 설정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그림자금융 감시 및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은행권에 요구되는 엄격한 자본요구 조건을 비은행권에도 적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림자금융을 포함하는 새로운 포괄적인 감독규정보다는 기존의 은행, 보험, 헤지펀드 규정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EU는 상장지수펀드(ETFs)사의 주식 자체가 증시에서 거래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이익의 상충 가능성과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재매입 합의 또는 환매(repos)를 통해 부채를 과도하게 쌓는 문제 등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규제해야 하는 사안들이 많다고 판단함.
- EU는 특정한 형태의 그림자금융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그림자금융이 형태를 바꿀 수 있으므로 형태보다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감시 및 규제를 하겠다고 밝힘.

(Financial Times, Wall Street Journal, 3/19)